

---

# 월간 일본경제동향

2021년 10월호

---

## Contents

〈통계 요약〉 .....	1
I. 일본 무역 동향	
1. 한일 무역 동향 .....	2
2. 일본 전체 무역 동향 .....	5
II. 일본 직접투자 동향	
1. 한일 직접투자 동향 .....	9
2. 일본 전체 직접투자 동향 .....	10
III. 일본 인적교류 동향	
1. 한일 인적교류 동향 .....	13
2. 일본 전체 인적교류 동향 .....	15
IV. 일본경제 및 일본기업 동향	
1. 일본경제 상황 및 정책 방향 .....	18
2. 일본경제 최근 동향 .....	23
3. 일본기업 최근 동향 .....	25



## 〈통계 요약〉

### 한일 무역의 2021년 9월 상황

	수출(백만\$, %)		수입(백만\$, %)		수지(백만\$)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한국 전체	55,829	16.7	51,623	31.0	4,206
일본 부분	2,525	17.1	4,647	20.0	-2,122
일본 비중	4.5		9.0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일본 전체 무역의 2021년 9월 상황

	2020년 9월	2021년 9월	증감률
수출(백만¥, %)	6,053,799	6,840,963	13.0
수입(백만¥, %)	5,386,437	7,465,015	38.6
수지(백만¥, %)	667,362	-624,052	-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보도발표(2021년 10월 28일)에 근거하여 작성

### 한일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

	2021년 6월		2021년 7월		2021년 8월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일본 전체(억¥)	6,881	7,509	19,244	-1,273	19,253	3,614
한국 부분(억¥)	173	200	74	30	25	95
한국 비중(%)	2.5	2.7	0.4	-	0.1	2.6

출처: 일본 재무성 직접투자 관련 속보(2021년 8월 10일, 9월 8일, 10월 8일)에 근거하여 작성

### 한일 인적교류의 2021년 9월 상황

한국방문 외국인 (명, %)				일본방문 외국인 (명, %)			
	2020년9월	2021년9월	증감률		2020년9월	2021년9월	증감률
전체(교포 포함)	65,040	89,800	38.1	전체	13,684	17,700	29.3
방한 일본인	794	1,142	43.8	방일 한국인	1,426	2,200	54.3
일본인 비중	1.22	1.27		한국인 비중	10.42	12.43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객수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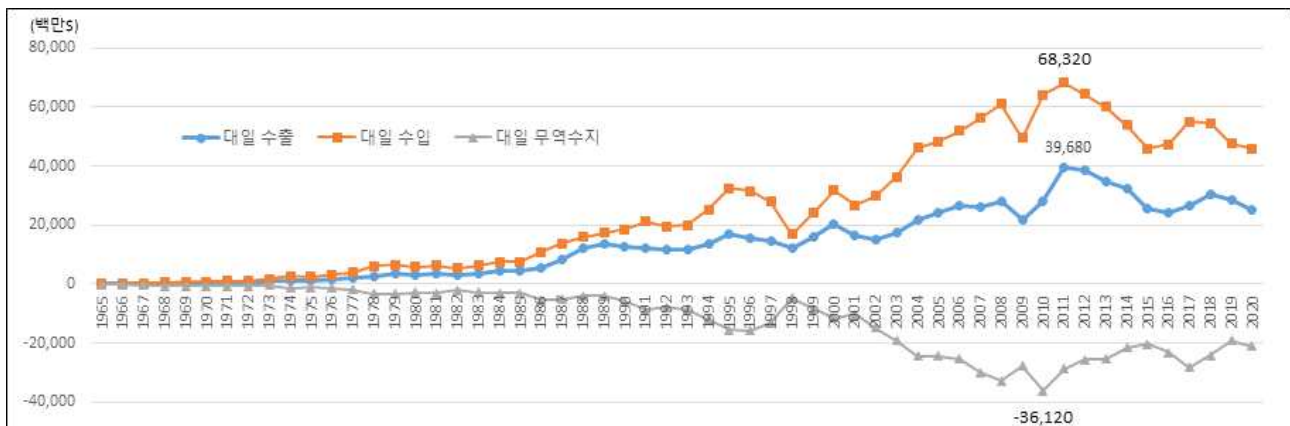
## I. 일본 무역 동향

### 1. 한일 무역 동향

#### □ 한일 무역의 장기적 추세

-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일 무역구조는 한국이 일본에 대해 만성적으로 적자를 내는 모습이었고, 한일 수출 및 수입의 규모는 2011년에 정점에 달한 이후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음

<그림1> 한일 무역의 장기적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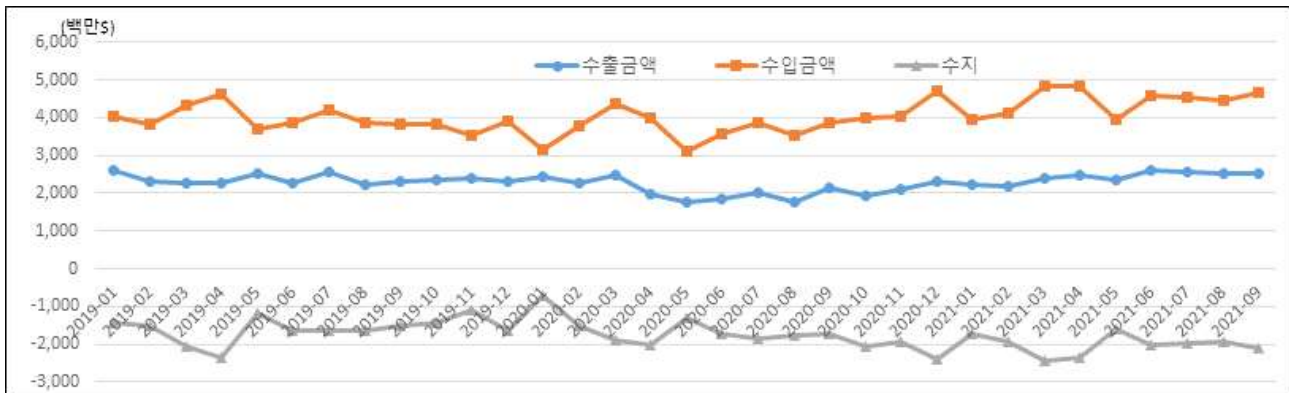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1965년 이후 통계에서 한 해도 예외 없이 한국의 대일(對日) 무역적자가 이어져 왔음
- 대일 수출은 2011년 683억 달러, 대일 수입은 2011년 397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다음 감소 추세를 보였음
- 대일 무역적자는 2010년 361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다음 감소 추세를 보였음
- 2020년에는 대일 수출과 수입 모두 전년대비 감소하였지만, 수출 감소가 상대적으로 더 커서 대일 무역적자는 전년대비 증가하였음

#### □ 한일 무역의 최근 추세

- <그림2>를 살펴보면,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 무역에 급격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고, COVID-19 발생 이후 대일(對日) 수출 수입이 감소 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21년 9월에는 전월대비 수출은 동일, 수입은 증가하였음

〈그림2〉 한일 무역의 최근 월별 추세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대일 수출은 COVID-19 발생 이후 2020년 4월부터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2021년 9월에는 전월대비 동일하였음
- 대일 수입은 COVID-19 발생 이후 2020년 4월부터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2021년 9월에는 전월대비 증가하였음
- 대일 무역적자는 COVID-19 발생 이후 2020년 5월에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 또는 정체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2021년 9월에는 전월대비 증가하였음

## □ 한일 무역의 2021년 9월 상황

- <표1>은 한일 무역의 2021년 9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대일(對日)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17.1% 증가하였고, 대일 수입은 동(同) 20.0% 증가하였음

〈표1〉 한일 무역의 2021년 9월 상황

	수출(백만\$, %)		수입(백만\$, %)		수지(백만\$)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한국 전체	55,829	16.7	51,623	31.0	4,206
일본 부분	2,525	17.1	4,647	20.0	-2,122
일본 비중	4.5		9.0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2021년 9월에 한국전체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16.7% 증가하여 558.3 달러가 되었고, 대일 수출은 동(同) 17.1% 증가하여 25.3억 달러가 되었음
- 2021년 9월에 한국전체 수입이 전년동월대비 31.0% 증가하여 516.2억 달러가 되었고, 대일 수입은 동(同) 20.0% 증가하여 46.5억 달러가 되었음

- 2021년 9월에 한국 전체 무역수지는 42.1억 달러 흑자였으나, 대일 무역수지는 21.2억 달러 적자였음
  - 2021년 9월에 한국 무역 전체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 경우는 4.5%였고, 수입 경우는 9.0%였음
- <표2> 및 <표3>은 2021년 9월 대일(對日) 수출 및 수입 각각 MTI 코드 2단위 기준 상위 10개 품목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수출 경우는 10개 품목 모두가, 수입 경우는 7개 품목이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lt;표2&gt; 한국의 2021년 9월 대일(對日) 수출 상위 10개 품목

순위	품목명	2020년 9월(백만\$, %)			2021년 9월(백만\$, %)		
		수출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수출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총계	2,157	-6.7	-1,716	2,525	17.1	-2,122
1	철강제품	269	-12.9	-88	384	43.1	-284
2	광물성연료	224	-37.7	190	361	61.5	304
3	정밀화학제품	192	13.8	-133	215	12.2	-167
4	석유화학제품	92	-12.3	-145	176	92.1	-133
5	전자부품	136	-17.0	-512	171	25.6	-625
6	금속광물	124	99.8	42	170	36.4	110
7	산업용전자제품	141	12.8	-65	142	1.1	-67
8	농산물	92	-6.5	76	95	3.6	78
9	기계요소공구및금형	74	-21.1	-27	78	5.4	-41
10	비철금속제품	45	8.0	-62	64	43.5	-71

주: 품목명은 MTI코드 2단위 분류기준에 근거한 것이며,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lt;표3&gt; 한국의 2021년 9월 대일(對日) 수입 상위 10개 품목

순위	품목명	2020년 9월(백만\$, %)			2021년 9월(백만\$, %)		
		수입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수입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총계	3,872	1.3	-1,716	4,647	20.0	-2,122
1	전자부품	647	9.1	-512	796	23.0	-625
2	철강제품	356	-29.9	-88	668	87.6	-284
3	정밀기계	407	47.4	-319	469	15.2	-410
4	정밀화학제품	324	-13.4	-133	382	17.8	-167
5	석유화학제품	236	-11.5	-145	309	30.8	-133
6	산업용전자제품	205	-5.4	-65	209	1.9	-67
7	플라스틱제품	224	12.2	-160	206	-7.8	-145
8	기초산업기계	197	5.1	-131	204	3.8	-140
9	수송기계	220	22.2	-145	199	-9.5	-143
10	산업기계	172	25.9	-110	163	-5.2	-103

주: 품목명은 MTI코드 2단위 분류기준에 근거한 것이며,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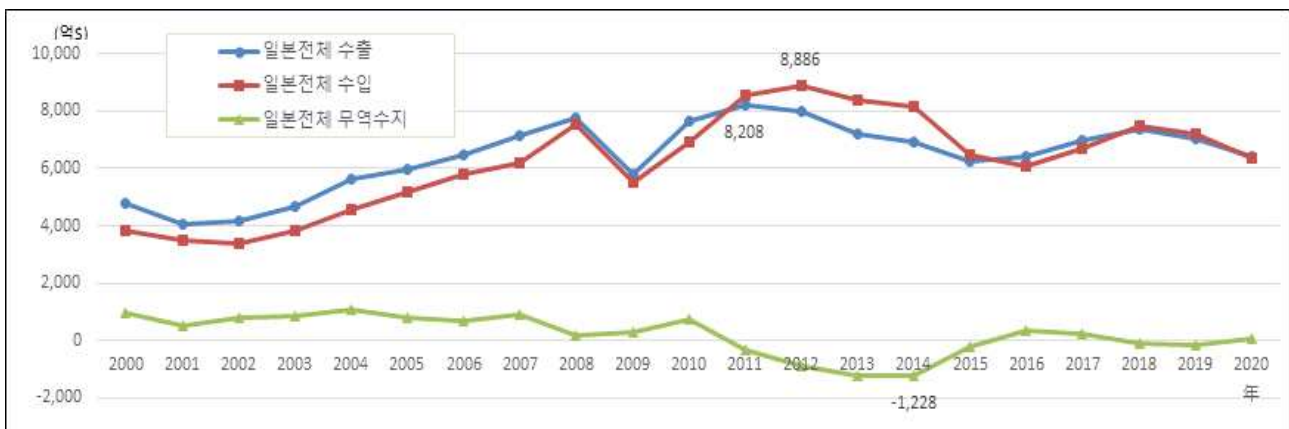
- 수출 경우는 상위 10개 품목 중 석유화학제품(92.1%), 광물성연료(61.5%), 비철금속 제품(43.5%) 등 10개 품목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 수입 경우는 상위 10개 품목 중 수송기계(-9.5%) 등 3개 품목은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으나, 철강제품(87.6%) 등 나머지 7개 품목은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 2. 일본 전체 무역 동향

### □ 일본 전체 무역의 장기적 추세

- <그림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은 2010년까지는 무역흑자를 달성해 왔으나,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한 2011년 이후 무역적자가 나타나기 시작함

<그림3> 일본 전체 무역의 장기적 추세



주: 각 수치는 재무성 엔화 기준 무역통계 자료를 JETRO가 달러로 환산한 값임

출처: JETRO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수출은 2011년에 8,208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음
- 수입은 2012년에 8,886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음
- 무역수지는 동일본대지진 영향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적자, 2016년과 2017년 흑자, 2018년과 2019년 적자를 보인 후 2020년에 흑자로 전환함
- 2019년 일본전체 수출은 7,057억 달러, 수입은 7,208억 달러, 무역수지는 151억 달러 적자였음
- 2020년 일본전체 수출은 6,400억 달러, 수입은 6,341억 달러로 수출 및 수입 규모는 전년대비 감소하였지만, 무역수지는 59억 달러 흑자였음

## □ 일본 전체 무역의 2021년 9월 상황

- <표4>는 일본전체 무역의 2021년 9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수출과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무역수지 경우는 전년동월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됨

&lt;표4&gt; 일본 전체 무역의 2021년 9월 상황

	2020년 9월	2021년 9월	증감률
수출(백만¥, %)	6,053,799	6,840,963	13.0
수입(백만¥, %)	5,386,437	7,465,015	38.6
수지(백만¥, %)	667,362	-624,052	-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보도발표(2021년 10월 28일)에 근거하여 작성

- 수출은 철강, 광물성연료, 반도체등제조장치 등이 증가한 반면, 자동차 등이 감소하였지만, 전체적으로 전년동월대비 13.0% 증가하여 6조 8,410억 엔이 되었음
  - 수입은 원조유(原粗油), 의약품, 석탄 등의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38.6% 증가하여 7조 4,650억 엔이 되었음
  - 무역수지는 전년동월 6,674억 엔 흑자에서 6,241억 엔 적자로 전환됨
- <표5>는 일본전체 무역의 2021년 9월 지역별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일부 감소 지역도 있지만 수출 수입 모두 전반적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 아시아 지역은 전체 수출의 59.8%, 수입의 47.1%를 차지하였는데, 수출과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일본의 對아시아 무역수지는 5,797억 엔 흑자였음
  - 중국은 제1위 무역 상대국으로서 수출의 21.6%, 수입의 23.7%를 차지하였는데, 수출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일본의 대중(對中) 무역적자는 2,928억 엔이었음
  - 홍콩은 수출의 5.1%, 수입의 0.1%를 차지하였는데, 수출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일본의 對홍콩 무역흑자는 3,390억 엔이었음
  - 대만은 수출의 7.5%, 수입의 4.5%를 차지하였는데, 수출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일본의 對대만 무역흑자는 1,776억 엔이었음
  - 한국은 수출의 7.3%, 수입의 4.1%를 차지하였는데, 수출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일본의 대한(對韓) 무역흑자는 1,888억 엔이었음
  - 미국은 수출의 16.9%, 수입의 10.2%를 차지하였는데, 전년동월대비 수출은 감소한 반면 수입은 증가하였고, 일본의 대미(對美) 무역흑자는 3,925억 엔이었음
  - 서유럽 전체에 대해 수출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 독일은 수출의 3.0%, 수입의 3.1%를 차지하였음



- 영국은 수출의 1.4%, 수입의 0.8%를 차지하였음

〈표5〉 일본 전체 무역의 2021년 9월 지역별 상황

	수출(백만¥, %)			수입(백만¥, %)			수지(백만¥, %)	
	수출금액	구성비	증감률	수입금액	구성비	증감률	수지금액	증감률
<b>총액</b>	<b>6,840,963</b>	<b>100.0</b>	<b>13.0</b>	<b>7,465,015</b>	<b>100.0</b>	<b>38.6</b>	<b>-624,052</b>	<b>-</b>
<b>아시아</b>	<b>4,094,162</b>	<b>59.8</b>	<b>21.3</b>	<b>3,514,473</b>	<b>47.1</b>	<b>25.7</b>	<b>579,689</b>	<b>-0.3</b>
중국	1,479,259	21.6	10.3	1,772,091	23.7	23.8	-292,832	226.6
홍콩	348,330	5.1	14.3	9,372	0.1	57.2	338,958	13.4
대만	516,287	7.5	31.0	338,697	4.5	40.6	177,590	16.0
대한민국	496,315	7.3	24.5	307,498	4.1	33.5	188,817	12.3
싱가포르	188,921	2.8	29.9	84,694	1.1	41.0	104,227	22.0
태국	305,968	4.5	37.0	243,501	3.3	26.4	62,467	103.1
말레이시아	143,138	2.1	23.0	146,034	2.0	22.3	-2,896	-4.6
인도네시아	142,284	2.1	90.3	186,344	2.5	43.3	-44,060	-20.3
필리핀	113,517	1.7	35.5	97,422	1.3	7.4	16,095	-
베트남	168,298	2.5	6.0	194,023	2.6	4.3	-25,725	-6.0
인도	121,974	1.8	42.1	54,081	0.7	24.3	67,893	60.3
<b>대양주</b>	<b>151,616</b>	<b>2.2</b>	<b>-5.9</b>	<b>605,062</b>	<b>8.1</b>	<b>96.6</b>	<b>-453,446</b>	<b>209.4</b>
호주	108,223	1.6	-16.1	543,560	7.3	99.5	-435,337	203.5
뉴질랜드	25,590	0.4	27.1	26,244	0.4	29.3	-654	280.9
<b>북미</b>	<b>1,218,540</b>	<b>17.8</b>	<b>-5.1</b>	<b>914,631</b>	<b>12.3</b>	<b>39.4</b>	<b>303,909</b>	<b>-51.6</b>
미국	1,155,320	16.9	-3.3	762,808	10.2	36.3	392,512	-38.2
캐나다	63,219	0.9	-29.3	151,337	2.0	57.9	-88,118	1261.7
<b>중남미</b>	<b>284,990</b>	<b>4.2</b>	<b>73.2</b>	<b>353,025</b>	<b>4.7</b>	<b>60.0</b>	<b>-68,035</b>	<b>21.2</b>
<b>서유럽</b>	<b>713,266</b>	<b>10.4</b>	<b>1.8</b>	<b>948,248</b>	<b>12.7</b>	<b>23.8</b>	<b>-234,982</b>	<b>262.7</b>
독일	202,310	3.0	16.9	230,381	3.1	24.2	-28,071	127.4
영국	94,106	1.4	-7.4	57,052	0.8	-10.9	37,054	-1.2
프랑스	51,543	0.8	1.1	102,090	1.4	18.8	-50,547	44.8
네덜란드	115,470	1.7	17.0	33,776	0.5	1.3	81,694	25.0
이탈리아	40,493	0.6	19.2	117,070	1.6	7.2	-76,577	1.8
<b>중부동부유럽/러시아등</b>	<b>154,639</b>	<b>2.3</b>	<b>5.7</b>	<b>210,905</b>	<b>2.8</b>	<b>46.1</b>	<b>-56,266</b>	<b>-</b>
<b>중동</b>	<b>129,530</b>	<b>1.9</b>	<b>-4.7</b>	<b>789,722</b>	<b>10.6</b>	<b>95.7</b>	<b>-660,192</b>	<b>146.6</b>
<b>아프리카</b>	<b>94,219</b>	<b>1.4</b>	<b>11.5</b>	<b>128,948</b>	<b>1.7</b>	<b>39.9</b>	<b>-34729</b>	<b>353.3</b>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보도발표(2021년 10월 28일)에 근거하여 작성



- <표6>은 일본전체 무역의 2021년 9월 품목별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수출 수입 양쪽에서 대부분의 품목이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 수출 경우는 수송용기기(-24.5%) 1개 품목은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지만, 광물성연료(167.8%), 원료별제품(42.8%) 등 나머지 8개 품목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 수출 경우 증가기여도 측면에서는 수송용기기(-5.6%)가 크게 감소하였고, 증가는 원료별제품(4.4%), 일반기계(4.3%), 화학제품(3.2%), 전기기기(3.2%) 등의 순으로 이루어졌음
  - 수입 경우는 광물성연료(90.0%), 원료품(74.9%), 화학제품(54.6%) 등 9개 품목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 수입 경우 증가기여도 측면에서는 광물성연료(13.2%), 화학제품(6.1%), 전기기기(5.5%) 등의 순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lt;표6&gt; 일본 전체 무역의 2021년 9월 품목별 상황

	수출(백만¥, %)				수입(백만¥, %)			
	수출금액	구성비	증감률	증감기여도	수입금액	구성비	증감률	증감기여도
총액	6,840,963	100.0	13.0	13.0	7,465,015	100.0	38.6	38.6
1 식료품	84,637	1.2	22.6	0.3	648,527	8.7	23.0	2.3
2 원료품	114,723	1.7	35.8	0.5	632,698	8.5	74.9	5.0
3 광물성연료	123,730	1.8	167.8	1.3	1,496,175	20.0	90.0	13.2
4 화학제품	913,084	13.3	27.3	3.2	935,861	12.5	54.6	6.1
5 원료별제품	885,932	13.0	42.8	4.4	711,246	9.5	36.7	3.5
6 일반기계	1,348,466	19.7	23.7	4.3	645,879	8.7	15.4	1.6
7 전기기기	1,351,064	19.7	16.5	3.2	1,193,935	16.0	33.3	5.5
8 수송용기기	1,049,421	15.3	-24.5	-5.6	251,936	3.4	6.4	0.3
9 기타	969,905	14.2	10.7	1.5	948,758	12.7	6.3	1.1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보도발표(2021년 10월 28일)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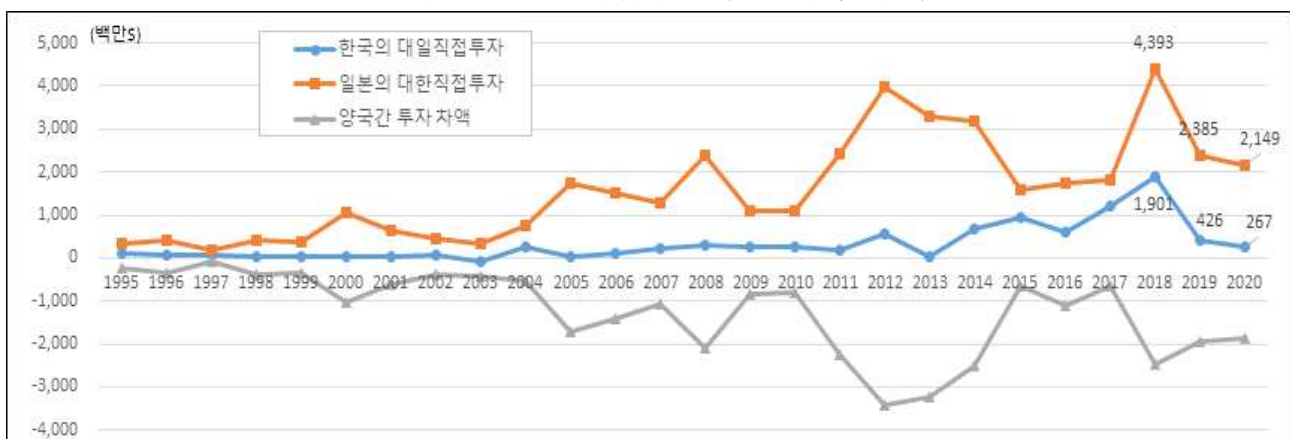
## II. 일본 직접투자 동향

### 1. 한일 직접투자 동향

#### □ 한일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 <그림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의 대한(對韓)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은 한국의 대일(對日)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을 상회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

<그림4> 한일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주: 해외직접투자 순(net)투자 기준(일본 재무성 및 일본은행 발표의 국제수지통계를 달러로 환산)이며, 국제수지통계 기준 변경에 따라 2013년 이전과 2014 이후 데이터의 연속성은 없음

출처: JETRO 직접투자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한국의 대일직접투자자와 일본의 대한직접투자자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여 왔으나,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
- 하지만 2019년 및 2020년에는 한국의 대일직접투자자와 일본의 대한직접투자자 양쪽 모두 전년대비 크게 감소하였는데, 한일간 갈등 및 COVID-19가 양국의 상호 직접투자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됨
- 2020년 한국의 대일직접투자자는 2.67억 달러였는데, 이는 일본의 대내직접투자 전체 659.77억 달러의 0.41%를 차지하였음
- 2020년 일본의 대한직접투자자는 21.49억 달러였는데, 이는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전체 1,711.23억 달러의 1.26%를 차지하였음

## □ 한일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

- <표7>은 한일 양국간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표7> 한일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

	2021년 6월		2021년 7월		2021년 8월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일본 전체(억¥)	6,881	7,509	19,244	-1,273	19,253	3,614
한국 부분(억¥)	173	200	74	30	25	95
한국 비중(%)	2.5	2.7	0.4	-	0.1	2.6

출처: 일본 재무성 직접투자 관련 속보(2021년 8월 10일, 9월 8일, 10월 8일)에 근거하여 작성

-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전체 순투자는 2021년 7월 19,244억 엔에서 8월 19,253억 엔으로 미미하게 증가하였음
- 한편, 일본의 대한(對韓)직접투자(대외직접투자 중 한국부분) 순투자는 7월 74억 엔에서 8월 25억 엔으로 감소하였고,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전체 순투자에서 차지하는 한국 비중은 0.4%에서 0.1%로 감소하였음
- 일본의 대내직접투자 전체 순투자는 2021년 7월에 회수가 실행보다 많아 -1,273억 엔으로 마이너스였으나, 8월에는 3,614억 엔으로 플러스로 되었음
- 한편, 한국의 대일(對日)직접투자(대내직접투자 중 한국부분) 순투자는 2021년 7월 30억 엔에서 8월 95억 엔으로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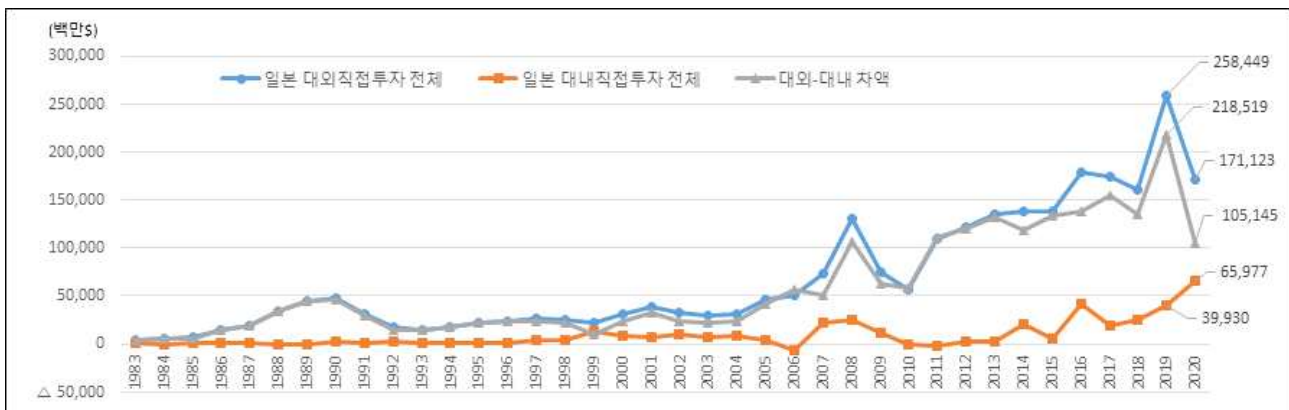
## 2. 일본 전체 직접투자 동향

### □ 일본 전체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 <그림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은 대내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을 상회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
- 일본의 대외직접투자는 1985년 플라자합의를 계기로 급증한 이후 버블 붕괴로 감소 추세로 돌아섰으나, 200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
- 그에 반해 대내직접투자는 2016년 이후 조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저조한 추세를 보여 왔음
- 대내직접투자가 저조했기 때문에 대외-대내 차액은 대외직접투자 경우와 유사한 추세를 보여 왔음

- 2019년 대외직접투자는 사상 최고인 2,584억 달러인 반면 대내직접투자는 399억 달러에 불과해 대외-대내 차액은 사상최대인 2,185억 달러에 달했음
- 한편 2020년에는 대외직접투자는 전년대비 감소하여 1,711억 달러로 되었지만, 대내직접투자는 전년대비 증가하여 사상최대인 660억 달러에 달했으며, 대외-대내 차액은 전년대비 감소하여 1,051억 달러로 되었음
- 2020년 일본의 무역수지가 59억 달러 흑자였던 것을 고려하면, 오늘날 일본은 무역대국이 아니라 직접투자 대국으로 전환하였다고 할 수 있음

〈그림5〉 일본 전체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주: 해외직접투자 순(net)투자 기준(일본 재무성 및 일본은행 발표의 국제수지통계를 달러로 환산)이며, 국제수지통계 기준 변경에 따라 2013년 이전과 2014 이후 데이터의 연속성은 없음

출처: JETRO 직접투자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 일본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

- <표8>은 2021년 8월 일본전체의 직접투자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 대외직접투자 순투자는 19,253억 엔이었으며, 대내직접투자 순투자는 3,614억 엔이었음
- 대외직접투자 전체 순투자는 실행이 회수보다 많아 19,253억 엔(실행 45,136; 회수 25,883)으로 플러스였음
  - 대외직접투자 순투자는 지역별로 북미(42.1%), 유럽(37.9%), 아시아(26.3%), 대양주(2.5%) 순으로 이루어졌고,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는 마이너스였음
  - 단일 국가 기준에서는 미국(7,990억 엔), 영국(6,950억 엔), 싱가포르(2,923억 엔), 중국(1,058억 엔) 등에 대한 순투자가 많았음
- 대내직접투자 전체 순투자는 실행이 회수보다 많아 3,614억 엔(실행 29,721 회수 26,107)으로 플러스였음

- 대내직접투자 순투자는 지역별로 유럽(48.9%), 북미(36.9%), 아시아(8.0%) 등의 순으로 이루어졌음
- 단일 국가 기준에서 순투자가 큰 곳은 미국(1,314억 엔), 영국(1,226억 엔), 홍콩(252억 엔), 스위스(244억 엔) 등이었음

〈표8〉 일본 전체 직접투자의 2021년 7월 상황

	대외직접투자(억 엔, %)				대내직접투자(억 엔, %)			
	실행 Execution	회수 Withdrawal	순투자 Net	순투자 구성비	실행 Execution	회수 Withdrawal	순투자 Net	순투자 구성비
<b>합계</b>	<b>45,136</b>	<b>25,883</b>	<b>19,253</b>	<b>100.0</b>	<b>29,721</b>	<b>26,107</b>	<b>3,614</b>	<b>100.0</b>
<b>아시아</b>	<b>9,178</b>	<b>4,117</b>	<b>5,060</b>	<b>26.3</b>	<b>7,163</b>	<b>6,874</b>	<b>290</b>	<b>8.0</b>
중국	1,697	639	1,058	5.5	719	720	-1	0.0
홍콩	403	261	142	0.7	1,032	781	252	7.0
대만	106	152	-46	-0.2	43	13	29	0.8
한국	147	122	25	0.1	97	1	95	2.6
싱가포르	5,279	2,356	2,923	15.2	5,182	5,254	-71	-2.0
태국	457	55	402	2.1	65	86	-21	-0.6
인도네시아	348	135	213	1.1	2	6	-4	-0.1
말레이시아	173	45	128	0.7	18	14	4	0.1
필리핀	130	52	78	0.4	—	—	—	—
베트남	285	130	155	0.8	1	—	1	0.0
인도	211	135	75	0.4	3	—	3	0.1
<b>북미</b>	<b>15,693</b>	<b>7,584</b>	<b>8,109</b>	<b>42.1</b>	<b>10,822</b>	<b>9,487</b>	<b>1,335</b>	<b>36.9</b>
미국	15,119	7,129	7,990	41.5	10,802	9,487	1,314	36.4
캐나다	573	455	119	0.6	20	—	20	0.6
<b>중남미</b>	<b>1,464</b>	<b>3,088</b>	<b>-1,624</b>	<b>-8.4</b>	<b>223</b>	<b>80</b>	<b>142</b>	<b>3.9</b>
멕시코	131	86	45	0.2	—	1	-1	0.0
브라질	105	5	100	0.5	—	—	—	—
케이만제도	618	2,743	-2,125	-11.0	184	51	133	3.7
<b>대양주</b>	<b>516</b>	<b>42</b>	<b>475</b>	<b>2.5</b>	<b>340</b>	<b>282</b>	<b>58</b>	<b>1.6</b>
호주	399	25	373	1.9	347	281	66	1.8
뉴질랜드	105	12	93	0.5	1	0	1	0.0
<b>유럽</b>	<b>17,820</b>	<b>10,522</b>	<b>7,298</b>	<b>37.9</b>	<b>11,151</b>	<b>9,383</b>	<b>1,768</b>	<b>48.9</b>
독일	1,778	1,799	-20	-0.1	1,508	1,600	-92	-2.5
영국	8,355	1,405	6,950	36.1	5,225	3,999	1,226	33.9
프랑스	140	221	-81	-0.4	471	380	91	2.5
네덜란드	821	689	131	0.7	1,938	1,766	172	4.8
이탈리아	41	43	-2	0.0	9	5	4	0.1
벨기에	2,184	2,028	155	0.8	691	564	127	3.5
룩셈부르크	1,846	1,103	743	3.9	21	29	-8	-0.2
스위스	246	60	187	1.0	994	751	244	6.8
스웨덴	225	46	179	0.9	3	4	-1	0.0
스페인	32	1	32	0.2	156	155	1	0.0
러시아	57	14	42	0.2	—	—	—	—
<b>중동</b>	<b>52</b>	<b>100</b>	<b>-49</b>	<b>-0.3</b>	<b>21</b>	<b>1</b>	<b>20</b>	<b>0.6</b>
<b>아프리카</b>	<b>414</b>	<b>430</b>	<b>-16</b>	<b>-0.1</b>	<b>2</b>	<b>—</b>	<b>2</b>	<b>0.1</b>

출처: 일본 재무성 직접투자 관련 속보(2021년 10월 8일)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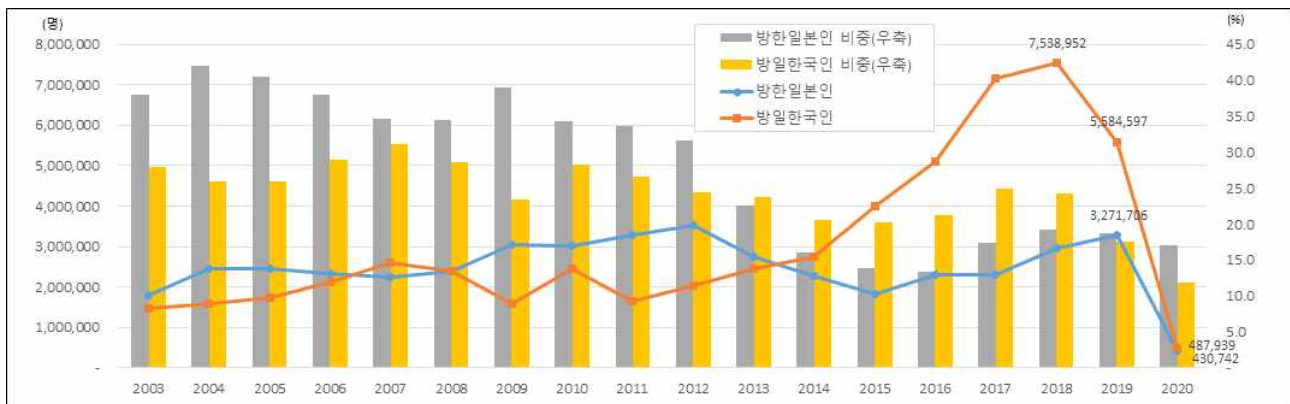
### Ⅲ. 일본 인적교류 동향

#### 1. 한일 인적교류 동향

##### □ 한일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

- <그림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부터 방일한국인 수가 방한일본인 수를 초월하였으나, 2019년에 방일한국인 수가 크게 감소하였고, 2020년에는 방일한국인 및 방한일본인 양쪽 모두 급감하였음

<그림6> 한일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객수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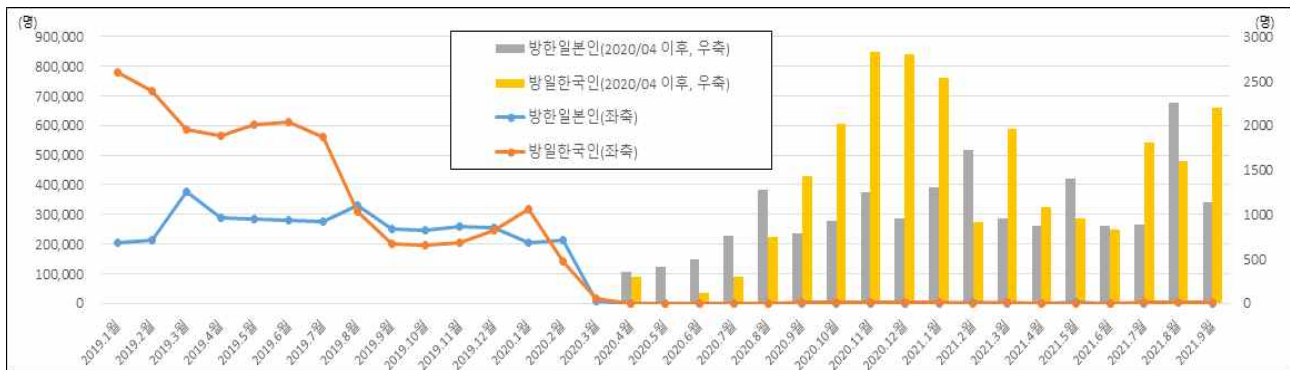
- 방한일본인 수는 2013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로 바뀌었고, 2019년에는 한일 갈등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증가하여 약 327만 명에 달하였으나, 2020년에는 COVID-19 영향으로 약 43만 명으로 급감하였음
- 방한외국인 중 일본인 비중은 2004년에는 42.0%에 달할 정도로 높았으나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 또한 방한외국인 전체 수가 2000년대 중반 이후 크게 증가해 왔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2019년 방한외국인 총수는 약 1,750만 명, 2020년은 예외적으로 약 252만 명)
- 방일한국인 수는 2012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여 2018년에 약 754만 명으로 정점에 달한 이후, 2019년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으로 크게 감소하여 약 558만 명이 되었고, 2020년에는 COVID-19 영향으로 약 49만 명으로 급감하였음
- 방일외국인 중 한국인 비중은 2010년대 방일한국인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방일외국인 전체 수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방일외국인 총수는 2019년 약 3,188만 명, 2020년은 예외적으로 약 412만 명)



## □ 한일 인적교류의 최근 추세

- <그림7>은 한일 인적교류의 최근 월별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2020년 3월부터 COVID-19 영향으로 방한일본인 방일한국인 양쪽 모두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나 이후 미미하지만 증가 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7> 한일 인적교류의 최근 월별 추세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객수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방한일본인 수는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에도 큰 변화 없이 월 25만 명 전후를 유지해 오다가 2020년 3월부터 급감하였음
- 방한일본인 수는 COVID-19 영향으로 2020년 3월부터 급감하였다가 이후 미미하지만 증가 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2020년 1월 203,969명, 2월 211,199명, 3월 8,347명, 5월 360명, 5월 413명, 6월 498명, 7월 755명, 8월 1,275명, 9월 794명, 10월 927명, 11월 1,254명, 12월 951명, 2021년 1월 1,299명, 2월 1,719명, 3월 949명, 4월 872명, 5월 1,403명, 6월 875명, 7월 881명, 8월 2,258명, 9월 1,142명)
- 방일한국인 수는 2019년 8월부터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11월에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가 2020년 2월부터 감소 그리고 3월부터 급감하였음
- 방일한국인 수는 COVID-19 영향으로 2020년 3월부터 급감하였다가 이후 미미하지만 증가 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2020년 1월 316,812명, 2월 143,896명, 3월 16,669명, 4월 299명, 5월 18명, 6월 122명, 7월 294명, 8월 749명, 9월 1,426명, 10월 2,021명, 11월 2,825명, 12월 2,808명, 2021년 1월 2,535명, 2월 910명, 3월 1,956명, 4월 1,076명, 5월 950명, 6월 835명, 7월 1,808명, 8월 1,600명, 9월 2,200명)

## □ 한일 인적교류의 2021년 9월 상황

- <표5>는 한일 인적교류의 2021년 9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교류인원이 COVID-19로 전년동월대비로는 크게 감소하였지만, 전년동월대비로는 증가하였음



〈표9〉 한일 인적교류의 2021년 9월 상황

한국방문 외국인 (명, %)				일본방문 외국인 (명, %)			
	2020년9월	2021년9월	증감률		2020년9월	2021년9월	증감률
전체(교포 포함)	65,040	89,800	38.1	전체	13,684	17,700	29.3
방한 일본인	794	1,142	43.8	방일 한국인	1,426	2,200	54.3
일본인 비중	1.22	1.27		한국인 비중	10.42	12.43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객수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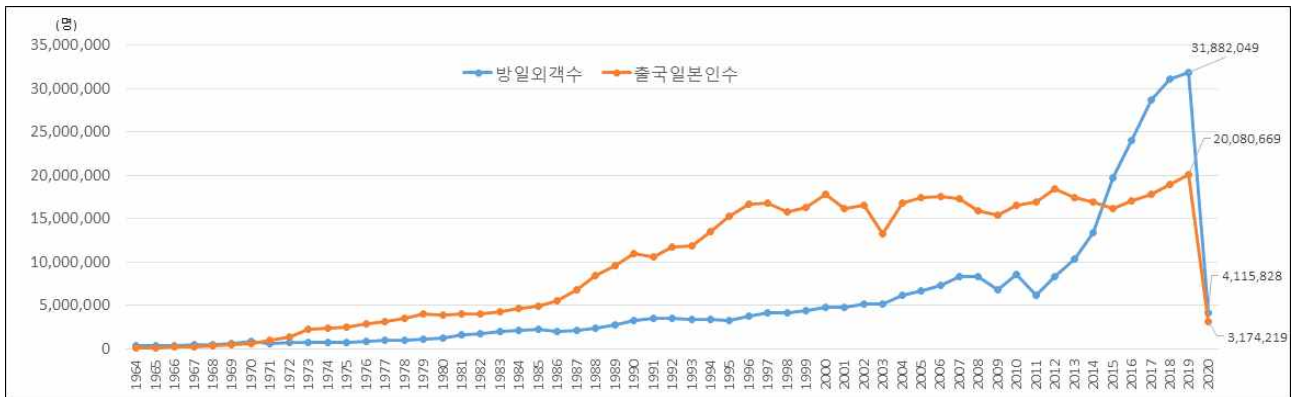
- 2021년 9월 방한외국인(교포 포함) 전체 수는 89,8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8.1% 증가하였고, 방한일본인 수는 1,142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3.8% 증가하였음
- 방한외국인 중 일본인 비중은 2020년 9월 1.22%에서 2021년 9월 1.27%로 미미하게 증가하였음
- 2021년 9월 방일외국인 전체 수는 17,7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9.3% 증가하였고, 방일한국인 수는 2,2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4.3% 증가하였음
- 방일외국인 중 한국인 비중은 2020년 9월 10.42%에서 2021년 9월 12.43%로 증가하였음

## 2. 일본 전체 인적교류 동향

### □ 일본 전체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

- 〈그림8〉은 일본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2015년 이후 방일외객수가 출국일본인수를 초월하였으나, 2020년에는 COVID-19 영향으로 양쪽 모두 전년대비 크게 감소하였음
- 1964년 이후 1970년까지는 방일외객수가 출국일본인수를 초월하였으나 1971년부터 후자가 전자를 초월하기 시작함
- 1971년부터 2014년까지 출국일본인수가 방일외객수를 초월하였으나, 2015년부터 후자가 전자를 초월하기 시작함
- 아베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관광객 유치로 인해 방일외객수는 2020년에 약 3,188만 명에 달하였는데, 이는 일본출국자수 약 2,008만 명보다 약 1,180만 명 더 많음
- 2020년에는 COVID-19 영향으로 인해 방일외객수와 출국일본인수 양쪽 모두 전년대비 크게 감소하여 각각 약 412만 명과 약 317만 명으로 됨

〈그림8〉 일본 전체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



출처: 일본정부관광국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 일본 인적교류의 2021년 9월 상황

- <표10>은 2021년 9월 방일외객수의 국가별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수가 COVID-19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로는 크게 감소하였지만, 전년동월대비로는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증가하였음
- 2021년 9월 방일외객 전체 수는 17,7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9.3% 증가하였음
- 방일외객 중 한국인 수는 2,200명으로 전체의 12.4%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대비 54.3% 증가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중국인 수는 4,000명으로 전체의 22.6%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대비 35.4% 증가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대만인 수는 400명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대비 47.8% 감소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홍콩인 수는 100명으로 전체의 0.6%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대비 12.4% 증가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태국인 수는 200명으로 전체의 1.1%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대비 80.7% 감소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미국인 수는 1,700명으로 전체의 9.6%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대비 169.0% 증가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프랑스인 수는 500명으로 전체의 2.8%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대비 331.0% 증가한 수치임

〈표 10〉 방일외객수의 2021년 9월 상황

국가·지역	2020년 9월		2021년 9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방일외객수(명)	비중(%)	방일외객수(명)	비중(%)	
전체	13,684	100.0	17,700	100.0	29.3
한국	1,426	10.4	2,200	12.4	54.3
중국	2,954	21.6	4,000	22.6	35.4
대만	767	5.6	400	2.3	-47.8
홍콩	89	0.7	100	0.6	12.4
태국	1,038	7.6	200	1.1	-80.7
싱가포르	30	0.2	70	0.4	133.3
말레이시아	242	1.8	200	1.1	-17.4
인도네시아	299	2.2	500	2.8	67.2
필리핀	134	1.0	400	2.3	198.5
베트남	2,698	19.7	1,000	5.6	-62.9
인도	389	2.8	500	2.8	28.5
호주	88	0.6	100	0.6	13.6
미국	632	4.6	1,700	9.6	169.0
캐나다	69	0.5	200	1.1	189.9
멕시코	11	0.1	20	0.1	81.8
영국	101	0.7	300	1.7	197.0
프랑스	116	0.8	500	2.8	331.0
독일	93	0.7	300	1.7	222.6
이탈리아	68	0.5	200	1.1	194.1
러시아	61	0.4	200	1.1	227.9
스페인	65	0.5	100	0.6	53.8
중동지역	173	1.3	300	1.7	73.4
기타	2,141	15.6	4,210	23.8	96.6

출처: 일본정부관광국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IV. 일본경제 및 일본기업 동향

### 1. 일본경제 상황 및 정책 방향

□ 일본 정부의 2021년 10월 경제 상황 판단 (내각부 월례경제보고, 2021년 10월 15일)

○ 일본 경제의 최근 주요 지표는 <표11>과 같음

<표11> 일본 주요 경제지표

	2019년	2020년	2021년 1-3월	2021년 4-6월	2021년 7-9월	2021년 6월	2021년 7월	2021년 8월	2021년 9월
<GDP> 실질국내총지출(GDP)	0.0	-4.6	-1.3	7.6					
<개인소비> 실질총고용자소득	0.5	-1.8	-0.4	2.9		2.1	2.1	2.0	
<민간설비투자> 자본재출하지수(수송기계제외)	-5.8	-9.5	5.2	22.7		23.8	21.2	P 27.3	
<주택건설> 신설주택착공호수(만호) 증감률	90.5 -4.0	81.5 -9.9	83.0 -1.6	87.5 8.1		86.6 7.3	92.6 9.9	85.5 7.5	
<공공투자> 공공공사 수주액	10.1	5.5	9.1	11.6		9.5	-12.6	1.2	
<수출입> 수출수량 수입수량	-4.3 -1.1	-11.8 -6.4	4.6 6.0	34.4 5.2		37.2 8.2	25.2 2.1	13.7 P 14.5	
<생산> 광공업생산지수	-3.0	-10.4	-1.0	19.9		23.0	11.6	P 9.3	
<법인경상이익-재무성> 전체규모-전체산업	-3.5	-27.3	26.0	93.9					
<도산> 기업도산건수(건) 증감률	8,383 1.7	7,773 -7.2	1,554 -28.1	1,490 -18.8	1,447 -28.4	541 -30.6	476 -39.6	466 -30.1	505 -10.6
<고용상황> 완전실업률	2.3	2.8	2.8	2.9		2.9	2.8	2.8	
<물가> 국내기업물가 소비자물가(종합-고정기준)	0.2 0.5	-1.2 0.0	-0.3 -0.5	4.6 -0.8	P6.0	5.0 -0.5	5.8 -0.3	5.8 -0.4	P 6.3
<금융> 닛케이평균주가(엔) 환율(엔/\$)	21,697 108.99	22,705 106.73	29,001 106.09	28,983 109.50	28,553 110.09	28,943 110.11	28,118 110.29	27,692 109.84	29,893 110.17

주: 각 수치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이며, P는 속보치

출처: 일본 내각부 월례경제보고(2021년 8월, 9월, 10월 등) 주요경제지표 중 일부 발췌하여 작성한 것이며,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본어 원본을 참조하기 바람

#### [소비 및 투자 등의 수요]

○ 개인소비는 약세로 움직이고 있음

- 수요측 통계와 공급측 통계를 합성한 소비종합지수는 8월에 전월대비 2.0% 감소함

- ‘가계조사’ (8월)에서는 실질소비지출은 전월대비 3.9% 감소하였고, 판매측 통계인 ‘상업동태통계’ (8월)에서는 소매업판매액이 전월대비 4.1% 감소하였음
  - 실질총고용자소득은 최근 보합권대로 되어 있고, 소비자 심리는 최근 회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최근 상황에 관한 의견을 들어보면, 신차판매대수는 공급 측면의 영향으로 감소하고 있음
  - 가전판매는 최근 약세로 움직이고 있음
  - 여행은 매우 낮은 수준이 계속되고 있고 약세로 움직이고 있음
  - 외식은 계속 약세가 보이지만, 회복 움직임도 보임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보면, 개인소비는 약세로 움직이고 있음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감염대책을 철저히 하는 가운데 회복 쪽으로의 방향전환이 기대되지만, 감염증 동향에 충분히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설비투자는 회복되고 있음
- 수요측 통계인 ‘법인기업통계계보(季報)’ (4-6월기 조사, 소프트웨어 포함)를 보면, 민간설비투자는 2021년 4-6월기에 전기대비 3.2% 증가하였고,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9% 증가, 비제조업이 2.8% 증가하였음
  - 기계설비투자의 공급측 통계인 자본재총공급(국내대상 출하 및 수입)은 증가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투자는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음
  - 일본은행 短觀(전국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9월 조사)에 따르면, 전체 산업의 2021년도 설비투자계획은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
  - 短觀에 따른 기업의 설비판단은 여전히 과잉이라는 인식이 남아 있지만 개선되고 있음
  - 선행지표를 보면, 기계수주는 회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건축공사비 예정액도 회복 움직임을 보임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장래가 불투명하다는 인식이 남아 있지만, 성장분야에 대한 대응 등을 배경으로 기계투자를 중심으로 회복 경향이 계속될 것이 기대됨
- 주택건설은 최근 회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자가주택의 착공은 최근 회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임대주택의 착공은 바닥이 견고하게 움직이고 있음
  - 분양주택의 착공은 대체적으로 보합상태임
  - 총 호수는 8월에 전월대비 7.7% 감소하여 연율 85.5만호로 되었음
  - 수도권 맨션 총판매호수는 계약률이 70% 전후로 움직이고 있지만 최근 약세 상태임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회복 움직임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공공투자는 높은 수준이지만, 최근 약세를 보이고 있음
  - 7월 공공공사 실적은 전월대비 1.1% 증가, 9월 공공공사 청부금액은 전월대비 6.9% 감소, 8월 공공공사 수주액은 전월대비 6.7% 감소로 나타남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약세로 추이해 갈 것으로 예상됨
- 수출은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고, 수입은 최근 회복 움직임에 담보 상태가 보이고 있고, 무역 및 서비스 수지는 적자로 나타나고 있음
  - 수출은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 및 유럽 쪽 수출은 대체적으로 회복 상태로 되어 있고, 아메리카 쪽 수출은 회복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기타 지역 쪽 수출은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임
  - 감염증에 따른 인바운드 쪽 영향에 관해서는 8월의 방일외객수는 2019년 대비 99.9% 감소하였음
  - 수입은 최근 회복 움직임에 담보 상태가 보이는데,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 및 아메리카로부터의 수입은 최근 회복 움직임에 담보 상태가 보이며, EU로부터의 수입은 회복 움직임이 보임
  - 무역 및 서비스 수지는 적자로 되어 있는데, 8월 무역수지는 수입금액 증가로 적자로 바뀌었고, 서비스 수지는 적자폭이 축소되었음

#### [기업 활동 및 고용]

- 생산은 최근 일부 약세가 보이지만 회복되고 있음
  - 광공업생산지수는 8월에 전월대비 3.2% 감소하였고, 광공업재고지수는 8월에 전월대비 0.3% 감소하였음
  - 제조공업생산예측조사에 따르면 9월은 전월대비 0.2% 증가, 10월은 전월대비 6.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업종별로 보면 수송기계는 약세 상태이며, 생산용 기계는 증가하고 있고, 전자부품·디바이스도 증가하고 있음
  - 생산의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회복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감염증에 따른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영향 및 반도체 부족에 따른 영향, 해외경제의 하향 리스크에 충분히 주의할 필요가 있음
- 기업 이익은 감염증 영향으로 비제조업의 일부에서 약세가 남아있지만 회복되고 있으며, 기업의 업황 판단 경우는 일부에 엄중함이 남아 있지만 회복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도산건수는 추세적으로는 감소하고 있음

- ‘법인기업통계계보(4-6월기 조사)’에 따르면 2021년 4-6월기 경상이익은 전년대비 93.9%, 전기대비 1.8% 증가로 나타남
- 기업의 업황 판단에는 일부에 엄중함이 남아 있지만 회복 움직임이 보이고 있음
- 도산 건수는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8월 466건, 9월 505건으로 나타남
- 고용 상황은 감염증 영향으로 약세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구인 등의 움직임에 바닥이 견고한 모습이 보임
  - 완전실업률은 8월에 전월과 같은 수준인 2.8%로 나타남
  - 노동력 인구 및 취업자수는 감소하였고, 완전실업자수는 증가하였음
  - 고용자 수는 보험권내에 있으며, 신규 구인 수 및 유효구인배율은 보험권내로 되어 있으며, 제조업 잔업시간은 회복되고 있음
  - 임금 경우는 정기급여 및 현금급여총액에 회복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그 결과 실질총고용자소득은 최근 보험권내로 되어 있음
  - 일본은행 短観(9월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고용인원 판단은 부족초과로 나타남
  - 또한 당장의 상황에 관해서는 일일 유효구인건수나 민간의 구인 동향 수준은 여전히 낮지만 회복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음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바닥이 견고하게 추이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고용조정 상황에 따라 약세가 커질 우려도 있기에 감염증 영향에 충분히 주의할 필요가 있음

#### [물가 및 금융]

- 일본 국내기업물가는 상승하고 있고, 소비자물가는 최근 바닥이 견고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
  - 9월 국내기업물가는 전월대비 0.3% 상승이고, 수입물가(엔 기준)도 상승하고 있음
  - ‘신선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종합’ 기준 소비자물가는 정책에 따른 특수요인을 제외하면 최근 바닥이 견고한 모습이 보임
  - 물가상승을 예상하는 세대의 비율을 ‘소비동향조사(2인 이상 세대)’로 살펴보면, 9월에는 전월대비 4.0% 포인트 상승하여 82.5%로 됨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소비자 물가(신선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종합)는 정책에 따른 특수요인을 제외하면 당분간 바닥이 견고하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됨
- 주가(닛케이평균주가)는 하락 후 상승하였고, 엔/달러 환율은 109엔대에서 113엔대로 엔저 방향으로 추이하고 있음
  - 주가는 30,500엔대에서 27,500엔대로 하락하였다가 28,100엔대까지 상승함
  - 달러대비 엔화의 환율은 109엔대에서 113엔대로 엔저 방향으로 추이함



- 단기금리를 보면 무담보콜금리는 -0.04%대에서 -0.00%대로 추이함
- 기업금융에 관해서는 기업의 자금조달 상황은 개선되고 있지만, 숙박·음식서비스 등에서는 여전히 엄중함이 보이고 있음
- 금융기관의 대출 평균잔고(전국은행)는 전년대비 0.4%(9월) 증가하였음
- 머니터리 베이스(본원통화 평균잔고)는 전년대비 11.7%(9월) 증가하였고, M2는 전년대비 4.2%(9월) 증가하였음

#### □ 일본 정부의 2021년 10월 정책 방향 (내각부 월례경제보고, 2021년 10월 15일)

- 일본 정부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창생, 그리고 점점 심각해지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재해에 대한 대응을 하고, 디플레이션을 벗어나기 위해, 대담한 금융정책, 기동적인 재정정책, 성장전략의 추진을 위해 노력함
- COVID-19 감염증에 대해서는 19개 도도부현(都道府県)의 긴급사태선언 및 8개 현(県)의 만연방지중점조치 전부를 9월 30일로 해제하였으나, 다양한 사태를 상정하여 백신접종, 치료약의 보급을 도모함과 더불어, 의료공급체제를 확보함.
  - 또한 사람들의 이동 억제 등의 영향을 받은 분들에 대한 경제지원을 실시함
  - 동시에 백신접종 증명서 등을 활용하면서, 평상시에 가까운 사회경제활동을 하루라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함
- 또한 이러한 과제에 끊임없이 대응하여 COVID-19 대응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과 ‘코로나 이후 새로운 사회의 개척’을 통한 ‘새로운 자본주의’를 기동시켜 국민의 안전·안심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경제대책을 책정함
  - 그 사이에도 신형 코로나 COVID-19 감염 상황과 기업이나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는 충분히 눈여겨보고 필요한 대책은 예비비 등도 활용해 유연하게 실행함
- 일본은행에 있어서는 기업 등의 자금 조달 지원에 최선을 다함과 더불어,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금융완화를 강화하는 조치가 취해져 있음
  - 일본은행에 대해서는 감염증의 경제에 대한 영향을 주시하고, 적절한 금융정책 운영을 실행하여, 경제·물가·금융상황을 고려하면서 2%의 물가안정 목표를 실현할 것을 기대함

## 2. 일본경제 최근 동향

### □ 경제 관련 정책 및 동향

#### ○ 무역수지 적자 및 경제안전보장

- 일본의 2021년 8월 경상수지는 1조 6,656억 엔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전년 동월보다는 감소하였는데, 이는 동남아시아의 COVID-19 감염 확대에 의한 부품 조달 문제로 자동차 생산량의 감소 및 유가 상승 등으로 무역수지가 적자가 되었기 때문임
- 재무성이 10월 20일 발표한 2021년 상반기(4~9월) 무역통계에 의하면 무역수지는 3,898억 엔 적자로 나타남
- 고바야시 경제안전보장담당대신은 10월 5일 취임 회견에서 ‘반도체 공급망 강인화’라고 하는 경제안전보장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대응을 서두를 생각을 나타냈음
  - \* 경제안전보장은 첨단기술의 유출을 막거나, 반도체 등 국가 산업에서 중요한 부품이나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구조인 공급망을 강하게 하는 것 등을 의미함
- 일본 경제산업성은 연내에 외환법 운용에 관한 통보를 개정하여 2022년도에 시행하는데, 일본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유학생에게 대학이 핵심 기술을 전수할 경우에 대학은 경제산업성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허가제의 대상인 중요 기술은 범용 기기나 부품의 군사 전용을 막는 국제 체제에 근거하여 결정하며, 반도체 제조 장치나 로봇 등 폭넓은 기술이 포함됨

#### ○ 에너지 문제 및 탈탄소 관련 정책

- 겨울철 전력 부족을 회피하기 위하여 경제산업성이 액화천연가스(LNG) 재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음
- 하기우다 경제산업상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탈탄소 실현을 위해 안전 확보를 대전제로 한 원자력발전 이용은 필수적이라는 생각을 강조했다
- 경제산업성은 10월 6일 암모니아 활용을 위한 첫 국제회의를 온라인으로 열었으며, 암모니아의 원료가 되는 천연가스 산출국의 정부관계자와 기업 관계자들이 참가했음
- 암모니아 활용 확대를 위해 질소산화물 배출을 환경기준 범위 내에서 억제하면서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국가기금에서 최대 700억 엔을 투자하기로 하였음
- 일본 정부는 10월 22일의 각의에서 새로운 에너지기본계획을 결정했으며, 2030년도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3년도 대비 46% 삭감하는 목표나 방책을 정리하였음
-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로 36~38%, 원자력으로 20~22%, 수소나 암모니아 1%, 석탄이나 천연가스 사용 화력으로 41%를 목표로 함
- 국토교통성은 10월 26일 국제해운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전세계에서 제로로 하는 목표를 국제해사기구(IMO)로 설정하도록 미국, 영국 등과 공동 제안한다고 발표하였음

## ○ 일본의 디지털화에 대한 대처 동향

- 일본정부는 10월 19일 데이터센터의 국내 정비를 검토하는 전문가 회의를 열고, 지방 분산을 진행시키기 위해 정부가 요구하는 요건을 논의하였음
- 데이터센터는 면적 비율로 보았을 때, 약 60%가 관동에 집중되어 있으며, 급증하는 데이터 통신량 대응 및 재해에 대한 대비로 지방 분산을 진행시키려 하고 있음
- 경제산업성은 부정 수급이 있던 혐의로 일시 정지하고 있었던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보조금 신규 접수를 10월 19일 재개하였음
- 오사카상공회의소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재해 후 고용 전망을 둘러싼 조사 결과 IT·디지털직을 늘리겠다는 응답이 18.8%로 나타나 기업의 IT화 촉진 인원 증가가 전망되고 있음

(출처: 닛케이신문, 2021.10.10., 2021.10.19. 2021.10.22., 2021.10.26.; 산케이신문, 2021.10.21., 2021.10.26.; NHK, 2021.10.05., 2021.10.06., 2021.10.08.; 요미우리신문, 2021.10.20.; 아사히신문, 2021.10.22.)

## □ 한일 관계

## ○ 양국 경제인회의 및 한일관계를 주제로 한 세미나 개최

- 일한경제협회는 양국의 기업경영자들이 경제협력을 협의하는 한일경제인회의를 11월 2일에 개최한다고 발표하였으며, 도쿄와 서울을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최대 200명 정도가 참가할 예정임
- 회의에서는 민간 교류의 강화를 확인하고, 디지털화 및 수소 사회의 대처 등에 관하여 정보를 교환함
- 주오사카한국총영사관과 리츠메이칸대학 동아시아평화협력연구센터는 한일관계 등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음

## ○ 미쓰비시중공업의 자산 매각 명령에 대한 즉시 항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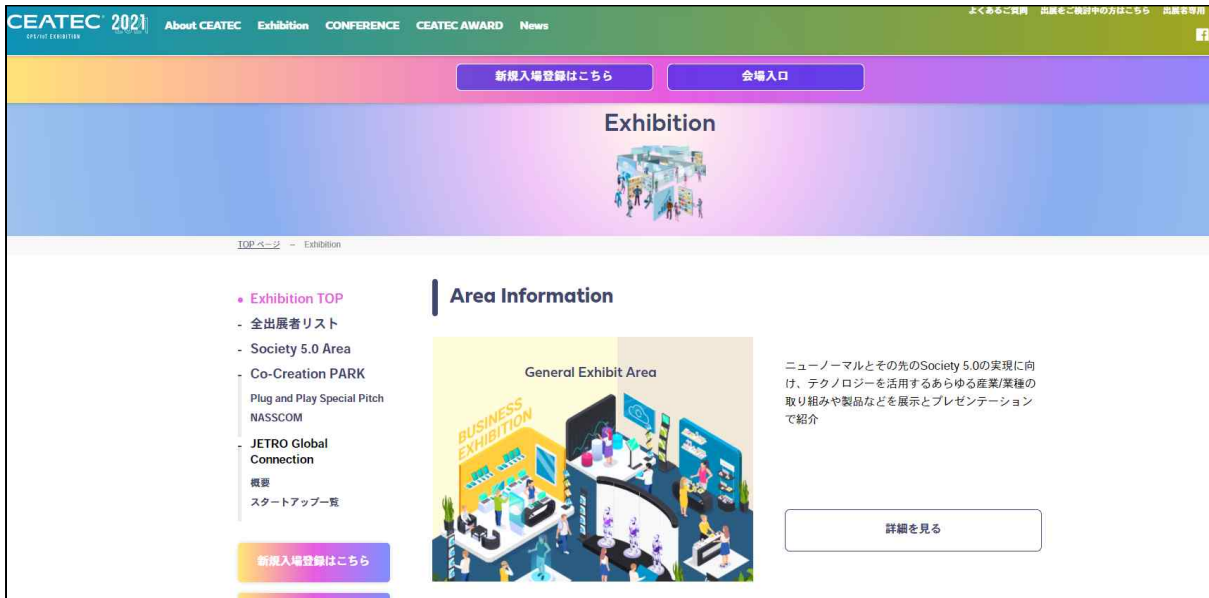
- 미쓰비시중공업은 정신대소송에서 원고 측이 압류한 동사의 자산 매각을 인정한 중부 대전지법의 매각 명령에 불복해 즉시 항고하였다고 10월 20일 밝혔음
- 동사는 전 정신대원들의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어,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일본 정부와 연계하여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코멘트를 하였음
- 이소자키 관방부장관은 미쓰비시중공업이 자산 매각 명령에 대해 즉시 항고한 것에 대하여 현금화에 이르면 한일관계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며, 앞으로도 한국 측이 일본 측에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빨리 내놓으라고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음

(출처: 산케이신문, 2021.10.19., 2021.10.20., 2021.10.21., 2021.10.26.)

### 3. 일본기업 최근 동향

#### □ 일본기업의 탈탄소화와 반도체산업 동향

- 기업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카가와현 히가시카가와시의 장갑업체 후쿠신은 2021년 6월 말에 본사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자체 전력의 25%를 조달하는 작업을 시작했으며, 설치비용은 크라우드펀딩에 의한 지원을 받았음
  - 후쿠신은 브랜드 기획 단계부터 사용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려고 사내에서 검토하여 2020년 12월 통상의 전력에서 재생에너지로 계약을 변경했으며, 태양광 발전을 포함해 사내 사용 전력은 모두 재생에너지임
  - 후쿠신의 후쿠자키 지로 사장은 전기에 대한 비용이 더 들더라도 이는 브랜드료나 사회공헌료이며, 소비자가 상품이 좋다고 생각하게 되면 좋다고 이야기함
  - 부동산업계와 건설업계는 이산화탄소 삭감이 어렵다고 여겨져 왔으나 탈탄소화로 선회하기 시작하였음
  - 부동산 등 개발 측은 골조를 재활용하는 건축 수법과 배출량의 가시화를 추진하고, 건설 회사는 환경친화적인 콘크리트의 발전 등을 서두름
  - 리파이닝(refining) 공법은 기존 골조를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재건축에 비해 공사기간을 큰 폭으로 단축할 수 있어 최근 주목받고 있는데, 골조 재활용으로 철과 시멘트의 제조를 억제하여 건축 시에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큰 폭으로 삭감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매력적임
  - 건설대기업인 카지마(鹿島)는 자재의 제조, 수송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양을 관계자 사이에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의 실용화에 착수하였으며,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면서 굳어지는 성질을 가진 특수 재료를 사용하는 콘크리트 ‘CO2-SUICOM(씨오투 스이콤)’을 발전시키는 연구도 시작했음
- 탈탄소로 제품 어필 및 순도 높은 수소 추출 실험에 성공
  - 2000년부터 시작된 첨단기술전시회 시텍이 10월 22일까지 열렸으며, 온라인 전시는 11월말까지 진행되는데, 대기업 전기 메이커들은 태양전지를 전시하거나, 인공지능을 이용한 에너지 절약 기술을 공개하는 등 탈탄소를 키워드로 제품을 어필하고 있음
  - NEDO(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와 도쿄대학, 신슈대학 등의 연구팀은 광촉매 기능을 활용하여 100평방미터 규모로 순도가 높은 수소를 안전하게 추출하는 실험에 성공하였음
  - 수소는 산소와 결합되어 불에 닿으면 연소하거나 폭발하므로 취급이 어려운 기체지만, 실험 결과 발생한 수소의 70% 이상을 94% 정도의 높은 순도로 안전하게 추출할 수 있었다고 함



출처: <https://www.ceatec.com/>

\* 광촉매는 빛에너지를 흡수하여 광화학 반응을 개시하고, 촉매로서 광화학 반응을 촉진하는 화합물을 일컫는데, 대표적인 광촉매로는 물을 광분해하여 수소 및 산소 기체를 얻기 위해 사용되는 이산화타이타늄( $\text{TiO}_2$ )이 있음(출처: 네이버화학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827471&cid=62802&categoryId=62802> )

#### ○ 일본 반도체 산업 관련 동향

- 미국의 반도체 대기업인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 10월 21일 공장 증설 등의 투자에 관해 일본을 비롯한 각국 정부 등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한 지원과 조건을 이끌어내려는 의도로 보임
- 마이크론은 2013년에 예전의 엘피다메모리를 매수하여 동사의 히로시마 공장을 계승하였으며, DRAM을 생산하고 있음
- TSMC(대만적체전로제조)가 10월 14일 결산 발표 기자회견에서 일본에 반도체 제조 공장을 짓겠다고 밝혔으며 2022년에 착공하여, 2024년에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산업 경쟁력 관점에서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한 국내 거점이 중요하다고 여겨져, 일본 정부도 일정 규모의 자금을 보조하는 것으로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함
- 반도체는 전기자동차와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각국은 제조거점 유치에 많은 보조금을 투입하는 등 국가 전략으로 공급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음

(출처: 아사히신문, 2021.10.15., 2021.10.17., 2021.10.22., NHK, 2021.10.14., 2021.10.17.; 산케이신문, 2021.10.26.; 닛케이신문, 2021.10.21.)



## □ 제철산업과 자동차산업 동향

- 일본제철의 전자강판 관련 소송 및 고로 중단
  - 일본제철이 전동차 모터에 사용할 전자강판에 대한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토요타자동차와 중국 철강기업 Baoshan강철을 10월 14일 도쿄지방법원에 제소했음
  - 토요타는 작년에 중국에서 전자강판 조달을 시작했는데, 일본제철은 자사 기술을 침해한 제품이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 전자강판은 전동차 모터에 쓰이는 탈탄소 시대 핵심 기술 중 하나로 특수한 제조공정을 거치기 때문에 만들기가 어려우며 품질안정을 유지하려면 자체기술과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함
  - 일본기업은 다양한 공급망 확립을 위해 복수 기업에서 부품을 조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부품 조달에서 리스크가 생길 수 있음
  - 기시다 후미오 정권은 경제안전보장을 강화하는 방침을 천명하고 있으며 반도체와 전자강판 등도 그 대상으로 검토할 예정임
  - 일본제철은 세토우치제철소(瀬戸内製鉄所) 구레지구의 고로 1기, 간사이제철소(関西製鉄所) 와카야마지구의 제1고로를 9월 말에 중단했으며, 동일본제철소(東日本製鉄所) 가시마지구의 1기를 2024년도 말에 중단할 결정도 끝난 상태인데, 이는 내수 감소가 가장 큰 이유라고 함
  - 한편, JFE스틸도 2023년 9월에 동일본제철소(東日本製鉄所) 게이힌지구의 1기를 중단할 계획이라고 함
- 중국시장에서의 전기자동차 강화 및 새로운 전지 소재 개발
  - 혼다는 10월 13일 2030년 이후 중국에 새로 투입 예정인 4륜차는 모두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 등 전동차로 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다
  - 현지의 생산체제 정비를 위해 현지기업과의 합병회사인 동평혼다(東風ホンダ)와 광치혼다(广汽ホンダ) 각각에 전기자동차 공장을 신설하고, 2024년 가동개시를 목표로 함
  - 배터리의 경우 중국의 차량용 배터리 대기업인 CATL(Contemporary Amperex Technology Co., Ltd.)과의 협업을 가속화해 공급체제를 강화함
  - 토요타자동차, نيسان자동차 등의 일본 자동차 기업들도 중국 시장에서의 전기자동차 강화방침을 나타냈음
  - 전지 개발 수탁기업인 에낙스는 내열·내압력 성능을 2배로 한 리튬 이온 배터리용 외장재를 개발했음
  - 에낙스가 개발한 소재는 리튬 이온 배터리의 셀 하나하나를 싸는 외장 재료로 기존에는 알루미늄을 사용한 파우치형 겹포장이 주를 이뤘으나 더 단단한 니켈 강판을 사용했음
  - 개발한 니켈강판은 전지의 셀 각각을 보강해 모듈로 만들기 때문에 설치장소를 보다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이점도 있음

(출처: 산케이신문, 2021.10.13., 2021.10.14., 2021.10.16.; 닛케이신문, 2021.10.15., 2021.10.25.)